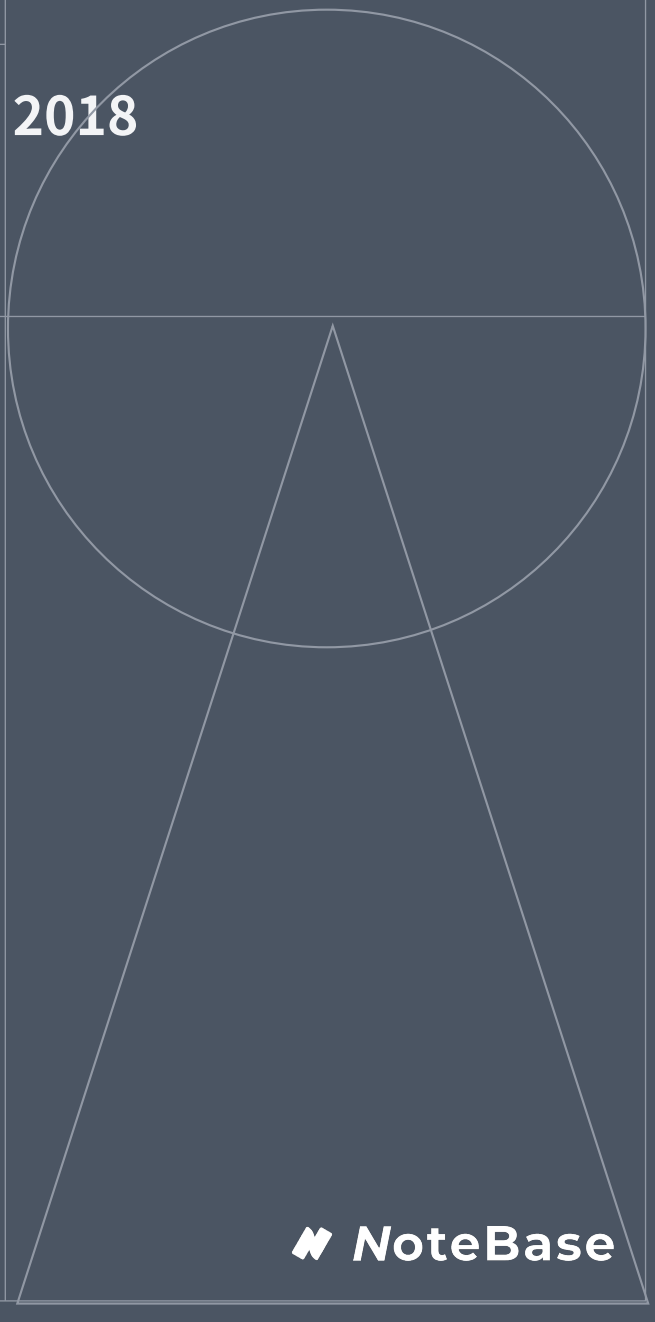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18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18

문 1.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 것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① 독도: Dok-do

② 반구대: Ban-gudae

③ 독립문: Dok-rip-mun

④ 인왕리: Inwang-ri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반구대'를 Bangudae로 붙여 쓰면 n과 g가 받침 'ㅇ'을 나타내는 ng로 읽힐 수 있다. **Ban-gudae**는 '반'의 끝소리 n과 '구'의 첫소리 g 사이에 붙임표를 넣어 **음절 경계의 혼동을 막은** 표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독도'는 붙임표로 음절 경계를 구별해야 할 발음상 혼동이 없으므로 제시된 규정의 적용 사례가 아니다. 자연 지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쓰는 규정에 따라 **Dokdo**로 적는다. 섬을 뜻하는 '도' 앞에 붙임표를 넣지 않는다.

② O: '반구대'를 Bangudae로 적으면 ng를 받침 'ㅇ'으로 읽어 '방'에서 첫 음절이 끝나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 **Ban-gudae**처럼 n과 g 사이에 붙임표를 넣으면 n은 '반'의 받침이고 g는 '구'의 첫소리임이 분명해진다. 이는 발음상 혼동을 막기 위해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③ X: '독립문'은 표준 발음 **[동님문]**에 따라 Dongnimmun으로 적는다. 자음 동화가 일어난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고,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따라서 Dok-rip-mun처럼 한글 음절을 그대로 나누어 적은 표기는 제시된 규정의 적용 사례가 아니다.

④ X: Inwang-ri의 붙임표는 발음상 혼동을 막기 위해 선택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행정 구역 단위 '리' 앞에 넣는** 것이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5항에 따라 '리'를 ri로 적고 그 앞에 붙임표를 넣으므로, Inwang-ri라는 표기 자체는 맞지만 제시된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다.

NoteBase

문 2.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문’은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현실은 ‘언간’에도 적용된다. ‘언간’ 사용의 제약은 무엇보다 이것을 주고받은 사람의 성별(性別)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15세기 후반 이래로 숱한 언간이 현전하지만 남성 간에 주고받은 언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남성 간에는 한문 간찰이 오간 때문이나 남성이 공적인 영역을 독점했던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언문’이 공식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과 상통한다. 결국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 때문에 내간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16, 17세기의 것만 하더라도 수신자는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계층의 남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문 간찰이 사대부 계층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① ‘언문’과 마찬가지로 ‘언간’의 실용 범위에는 제약이 있었다.

②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해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졌다.

③ 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④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글은 언간에 여성이 관여했다는 특징을 설명한 뒤, 이를 여성들만의 편지로 보는 오해를 바로잡는다.
왕·사대부부터 한글을 읽을 수 있는 하층민 남성까지 수신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언간은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이용한 수단**이었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NoteBase

핵심 풀이

첫 문단은 언간의 사용 제약을 설명한다. 남성들 사이에서는 한문 간찰을 주고받았으므로, 언간에는 발신자나 수신자 중 한쪽으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①의 실용 범위 제약과 ④의 여성 관여는 이 문단에 제시된 사실이지만, **글 앞부분의 특징만 담고 있다**.

둘째 문단의 '그러나'부터는 '내간'이라는 명칭이 낳을 수 있는 오해를 반박한다. ②는 사용자의 성별 특징 때문에 붙은 명칭을 설명할 뿐이다. 글이 강조하는 것은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16, 17세기에는 왕·사대부뿐 아니라 한글을 읽을 수 있는 하층민 남성도 언간의 수신자가 될 수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사대부 계층 이상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한문 간찰과 대비하여,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결론짓는다. ③의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는 이러한 **이용자 범위의 넓음**을 요약한다. 남성끼리도 언간을 자유롭게 주고받았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여성의 관여라는 특징이 있었어도 이용자가 여성이나 특정 계층에만 한정되지는 않았다는 결론이 글 전체의 중심이다.

NoteBase

문 3. (가)~(라)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 국어 성적도 좋고.
(나) 친구가 “난 학교에 안 가겠다.”고 말했다.
(다)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라) 대통령은 진지한 연설로서 국민을 설득했다.

①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은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 ‘은’을 주격 조사 ‘이’로 바꿔 쓴다.

② (나): 직접 인용문 다음이므로 인용 조사는 ‘고’가 아닌 ‘라고’를 쓴다.

③ (다): 어미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고’로 바꿔 쓴다.

④ (라): ‘로서’는 자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수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조사 ‘로써’로 바꿔 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면서'는 두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다)를 '멈추고'로 고치는 이유는 가던 길을 멈추는 일과 나에게 달려오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이어지는 동작**이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에서 '은'을 대조의 뜻으로 쓰면 수학 성적은 좋지만 국어 성적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를 암시한다. 이는 국어 성적까지 좋다는 뒤 문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대조의 뜻을 덜어 내는** 주격 조사 '이'를 써서 '수학 성적이 참 좋군. 국어 성적도 좋고.'로 고친다.

② O: (나)는 친구가 한 말을 큰따옴표 안에 그대로 옮긴 **직접 인용**이다. 따라서 간접 인용에 쓰는 조사 '고'를 직접 인용 조사 '라고'로 바꾸어 '친구가 “난 학교에 안 가겠다.”라고 말했다.'로 쓴다.

③ X: '-면서'는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가 **동시에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다)는 동생이 가던 길을 먼저 멈춘 뒤 나에게 달려왔다는 내용이므로,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나에게 달려왔다.'로 고쳐 두 동작이 앞뒤로 이어짐을 표현한다. 고치는 이유는 '-면서'가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문장의 두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④ O: (라)의 '진지한 연설'은 대통령의 지위나 자격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수단**이다.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 '로서'를 수단을 나타내는 '로써'로 바꾸어 '대통령은 진지한 연설로써 국민을 설득했다.'로 쓴다.

NoteBase

문 4. <보기>를 근거로 판단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통일성은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관련되는 특성을 말한다. 초고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에는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중심 내용에 부합하는 하위 내용들로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사람들은 대개 수학 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 ㉠바로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수학 선생님 덕분이다. 수학 선생님은 유머로 딱딱한 수학 시간을 웃음바다로 만들곤 한다. ㉡졸리는 오후 시간에 뜬금없이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자고 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설명한 적도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수학 선생님의 인기가 시들 줄 모른다. ㉢그리고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다. ㉣내 수학 성적이 좋아진 것도 수학 선생님의 재미있는 수업 덕택이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의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잘한다'는 내용은 **선생님의 재미있는 수업**이라는 중심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삭제해야 글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NoteBase

공통 해설

통일성은 글의 모든 내용이 하나의 주제와 긴밀하게 관련되는 성질이다.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수학 선생님이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여 내가 수학 시간을 즐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문장이 **재미있는 수업의 이유·사례·결과**를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한다.

㉠은 내가 수학 시간을 재미있어하는 이유를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서 찾는다. ㉡은 선생님이 수학여행 이야기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 뒤 어려운 문제를 쉽게 설명한 구체적인 사례이다. ㉣은 재미있는 수업 덕분에 내 수학 성적이 좋아졌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세 문장은 모두 재미있는 수업이라는 중심 내용을 뒷받침한다.

㉢은 선생님 아들의 수학 실력에 관한 소문을 전할 뿐,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나 그 수업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하지 않는다. '수학'과 '수학 선생님'이라는 말이 반복되어도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하므로** 통일성을 해친다. 이 문장을 삭제하면 선생님의 인기를 설명한 내용에서 재미있는 수업의 효과인 내 성적 향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NoteBase

문 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내 마음 베어 내어 저 달을 만들고져
구만 리 장천(長天)의 번듯이 걸려 있어
고운 님 계신 곳에 가 비추어나 보리라

(나) 열다섯 아리따운 아가씨가
남부끄러워 이별의 말 못 하고
돌아와 겹겹이 문을 닫고는
배꽃 비친 달 보며 흐느낀다

① (가)와 (나)에서 '달'은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② (가)의 '고운 님'과,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③ (가)의 '나'는 적극적인 태도로, (나)의 '아가씨'는 소극적인 태도로 정서를 드러낸다.

④ (가)의 '장천(長天)'은 사랑하는 임이 머무르는 공간이고, (나)의 '문'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마음을 숨기는 공간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가)는 자신의 마음을 달로 만들어 임이 있는 곳을 비추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다. (나)의 아가씨는 부끄러워 이별의 말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은 채 홀로 흐느끼므로, 슬픔을 **소극적으로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의 달은 화자의 마음을 형상화한 것으로, 임이 있는 곳을 비추며 사랑을 전하려는 매개체이다. 그러나 (나)의 달은 아가씨가 바라보며 흐느끼는 대상으로, **이별의 슬픔을 부각하는 배경**이다. 달을 통해 임에게 마음을 전하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X: (가)의 '고운 님'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반면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별의 슬픔을 겪는 인물**이다. (나)의 화자는 아가씨가 말을 못 하고 돌아와 흐느끼는 모습을 서술한다.

③ O: (가)의 '내 마음 베어 내어 저 달을 만들고져', '가 비추어나 보리라'에는 달을 만들어서라도 임에게 다가가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나)의 아가씨는 '남부끄러워 이별의 말 못 하고' 돌아와 문을 닫고 흐느낀다. 임 앞에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슬퍼한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④ X: (가)의 '장천'은 높고 넓은 하늘로, 화자의 마음으로 만든 **달을 걸어 두려는 공간**이다. 임이 머무르는 공간은 별도로 '고운 님 계신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나)에서 겹겹이 문을 닫는 행동은 아가씨가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혼자 슬픔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 주므로, '문'을 마음을 감추는 경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의 장천을 임이 머무르는 공간으로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곽재구, 「사평역에서」 —

① ㉠ — 여러 개의 난로가 지펴져 안온한 대합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② ㉡ — 대조적 색채 이미지를 통해, 눈 오는 겨울 풍경의 서정적 정취를 강조하였다.

③ ㉢ —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의 비관적 심리와 무례한 행동을 묘사하였다.

④ ㉣ —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 때를 떠올리며 느끼는 정서를 화자의 행위에 투영하였다.

NoteBase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화자는 그리운 순간들을 마음속으로 불러내며 느끼는 감정을 '눈물'로 드러낸다. ㉣은 **과거를 회상하는 정서를 불빛 속에 눈물을 던지는 행위에 담은 표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은 눈 시린 유리창과 톱밥난로를 함께 제시하여 추운 겨울밤 대합실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그린다. 그러나 '유리창마다'라는 표현만으로 **실제로 여러 개의 난로가 지펴졌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시적 장면을 난로의 개수에 관한 설명으로 해석한 데 문제가 있다.

② X: '청색의 손바닥'은 추위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는 난로 가까이에서 손을 녹이는 모습을 드러낸다. 차가움을 연상시키는 손바닥과 따뜻한 불빛의 대비는 **추위 속에서 온기를 찾는 사람들의 처지**를 부각한다. 또한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해도 침묵한다는 문맥은 저마다 사연을 품은 사람들의 내면을 보여 준다. 눈 오는 풍경의 서정적 정취를 강조했다는 해석은 이러한 인물과 상황의 의미를 놓친다.

③ X: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는 대합실 사람들의 아픔과 고단함을 청각·미각 등의 감각을 통해 드러낸다. 신체적 아픔을 나타내는 단서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비관적인 심리로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기침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타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의미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O: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는 화자가 지난날의 그리운 순간들을 마음속으로 불러내는 것을 뜻한다. 이어지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는 그때 느끼는 그리움과 슬픔을 행위로 형상화한 표현이다. 앞부분에서 던졌던 '한 줌의 톱밥'이 끝부분에서는 '한 줌의 눈물'로 바뀌면서, **구체적인 행동에 화자의 내면 정서가 겹쳐 드러난다**.

따라서 그리운 과거를 떠올리는 정서와 그 정서가 투영된 행위를 연결한 ④가 가장 적절하다.

NoteBase

문 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 놓고 욕필이(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의 배참봉 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욕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똑 됐다. 장인께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 김유정, 『봄봄』 —

① 마름의 특성을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 표현했다.

② 비속어와 존칭어를 혼용하여 해학적 표현을 구사했다.

③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장인의 됨됨이가 마땅치 않음을 드러냈다.

④ 장인과 소작인들 사이의 뒷거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제시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장인이 금품과 술을 받고 소작할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태는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거래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한 것이 아니라, **되풀이되는 횡포를 요약하여 설명**한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마름의 생김새를 '호박개'에 빗대고, 장인의 외양이 거기에 꼭 들어맞는다고 말한다. 사람을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는 표현**으로 장인과 마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② O: '이놈의 장인님'에서 비속한 표현인 '이놈'과 높임을 나타내는 '장인님'을 함께 쓴다. 장인을 높여 부르면서 동시에 욕하는 **표현상의 어긋남**이 웃음을 유발하여 해학적인 효과를 낸다.

③ O: 장인이 화가 나면 손버릇이 나쁘다는 점,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퍼붓는다는 점, 아이들에게까지 '욕필이'로 불린다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닭이나 품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의 소작할 땅을 빼앗고, 미리 돈과 술을 제공한 사람에게 넘기는 행태도 드러낸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통해 **장인의 거칠고 탐욕스러운 됨됨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 준다.

④ X: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라는 표현으로 뒷거래의 내용은 알려 주지만, 특정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대화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펼쳐 보이지는 않는다.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과 같이 조건과 결과를 연결하여 장인의 상습적인 횡포를 설명한다. 따라서 '뒷거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다'는 설명은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관행을 요약적으로 서술했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8.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_____(이)란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들이 이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모여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대안들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을 말한다.

① 協贊
② 協奏
③ 協助
④ 協商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갈등 당사자들이 대안을 조정하며 합의에 이르려는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은 **협상(協商)**이다.

공통 해설

협상(協商)은 이해관계가 다른 둘 이상의 주체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요구와 대안을 조정하며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協'은 '힘을 합하다', '商'은 '의논하다'라는 뜻으로, 함께 의논하여 의견 차이를 좁힌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지문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 돕는 행위가 아니라 **대안들을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려는 과정**이므로, 빈칸에는 '協商'이 들어간다.

NoteBase

문 9.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문맥상 적절한 것은?

① 초고를 校訂하여 책을 완성하였다.

② 내용이 올바른지 서로 交差 검토하시오.

③ 전자 문서에 決濟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하겠습니다.

④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提高 바랍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校訂(교정)'은 **잘못된 글자나 글귀를 바로잡는 것**이다. 초고를 고쳐 책을 완성했다는 문맥에 알맞다.

선지별 해설

① O: '校訂(교정)'은 문장이나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나 글귀 등을 바르게 고치는 일이다. 초고를 **바르게 고쳐 책을 완성했다**는 내용이므로 문맥에 맞는다.

② X: 서로 내용을 검토한다는 문맥에서 쓰는 '교차'의 한자는 **'交叉'**이다. '교차(交叉)'는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친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서로의 내용을 바꾸어 검토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交差'를 '交叉'로 고쳐야 한다.

③ X: '決濟(결제)'는 대금을 주고받아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이다. 합격자를 확정하기 위해 문서에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決裁(결재)'**로 고쳐야 한다. '결재'는 결정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일이다.

④ X: '提高(제고)'는 정도나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제안한 계획을 수용할 수 없어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맥이므로 **'再考(재고)'**로 고쳐야 한다. '재고'는 어떤 일이나 문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일이다.

NoteBase

문 10. ㉠~㉣의 예를 추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논리학에서 비형식적 오류 유형에는 우연의 오류, 애매어의 오류, 결합의 오류, 분해의 오류 등이 있다. 우선 ㉠우연의 오류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을 우연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긴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오류이다. 그 예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중증 정신 질환자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중증 정신 질환자는 이성적인 동물이다."를 들 수 있다. ㉡애매어의 오류는 동일한 한 단어가 한 논증에서 맥락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용될 때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김 씨는 성격이 직선적이다. 직선적인 모든 것들은 길이를 지닌다. 고로 김 씨의 성격은 길이를 지닌다."가 그 예이다. 한편 각각의 원소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원소들을 결합한 집합 전체도 역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결합의 오류이고, 반대로 집합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집합의 각각의 원소들 역시 개별적으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분해의 오류이다. 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 단원들 하나하나가 다 훌륭하다. 고로 그 연극단은 훌륭하다."를, 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은 일류급이다. 박 씨는 그 연극단 일원이다. 그러므로 박 씨는 일류급이다."를 들 수 있다.

① ㉠ -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② ㉡ -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 고로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③ ㉢ -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미국 선수 각자는 세계 최고 기량을 갖고 있다.

④ ㉣ - 그 학생의 논술 시험 답안은 탁월하다.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부패하다'는 음식물 등이 **썩는다는 뜻**과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같은 의미처럼 연결해 세상도 냉동 보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으므로 애매어의 오류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의 우연의 오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을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긴다. 이 논증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전제를 사람인 소크라테스에게 적용한 것으로, **예외적인 상황에 규칙을 잘못 적용한 경우가 아니다**. 주어진 전제에서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되므로 우연의 오류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② O: ㉡의 애매어의 오류는 한 논증에서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면서 같은 의미인 것처럼 추론할 때 생긴다.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에서 '부패'는 음식물 등이 썩는 현상을 뜻하지만,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에서는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뜻한다. **'부패'의 의미가 달라졌는데도** 냉동 보관이라는 조치를 세상에 적용했으므로 애매어의 오류에 해당한다.

③ X: 선수단 전체가 금메달을 차지했다는 사실에서 선수 각자의 기량이 세계 최고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전체의 성질을 개별 구성원에게 적용**한 것이므로 ㉢의 결합의 오류가 아니라 ㉣의 분해의 오류이다. 선수단의 성과만으로 모든 선수의 개인 기량이 세계 최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X: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다는 사실에서 답안 전체도 탁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개별 구성원의 성질을 전체에 적용**한 것이므로 ㉣의 분해의 오류가 아니라 ㉢의 결합의 오류이다. 각각의 문장이 좋아도 문장 사이의 연결이나 글 전체의 구성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답안 전체의 탁월함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NoteBase

문 11. 다음 글의 주된 설명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 즉 실제 생활은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지만 이 재료들이 일단 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그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떠올려 보자. 건축가는 어떤 완성된 구조를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적절하게 집을 짓게 되는데, 이때 건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를 완성하게 되면 이 완성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된 재료들은 본래의 재료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②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물론 많지만 그중에서도 인물, 배경, 사건을 들 수 있다. 인물은 사건의 주체, 배경은 인물이 행동을 벌이는 시간과 공간, 분위기 등이고, 사건은 인물이 배경 속에서 벌이는 행동의 세계이다.

③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 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험난한 인생의 노정을 완주하지 못한다. 목적을 갖고 뛰어야 마라톤에서 완주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④ 신라의 육두품 출신 가운데 학문적으로 출중한 자들이 많았다. 가령, 강수, 설총, 녹진, 최치원 같은 사람들은 육두품 출신이었다. 이들은 신분적 한계 때문에 정계보다는 예술과 학문 분야에 일찌감치 몰두하게 되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제시문은 문학 세계가 형성되는 원리를 집을 짓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하는 **유추**를 사용한다. 인생에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일을 마라톤에서 목적을 갖고 완주하는 일에 빗댄 설명도 같은 방식이다.

NoteBase

공통 해설

유추는 서로 다른 대상 사이의 **유사한 속성이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제시문에서는 '실제 생활의 재료가 문학 세계의 일부가 되면서 본래와 달라지는 관계'를 '건축 재료가 완성된 집의 일부가 되면서 본래와 달라지는 관계'에 대응시킨다. 집을 짓는 과정을 통해 문학 세계가 형성되는 원리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인생과 마라톤을 연결한 글에서는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여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적을 갖고 뛰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에 대응시킨다. **목적을 지닌 노력이 성취로 이어진다는 관계**를 서로 다른 두 대상에 적용하므로 제시문과 같은 설명 방식이다.

'같은', '처럼'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글의 주된 설명 방식이 유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르네상스 회화와 인상주의 회화를 다룬 글은 두 회화가 사실성을 추구했다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쓰였지만, 글 전체는 다른 대상의 관계를 빌려 회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구조가 아니다.

소설을 다룬 글은 인물·배경·사건이라는 구성 요소를 나누어 각 요소의 의미를 풀이한다. 이는 다른 대상과의 유사한 관계를 활용한 설명이 아니다.

육두품을 다룬 글은 강수·설총·녹진·최치원이라는 실제 인물들을 사례로 든다. **설명 대상에 속하는 실제 사례**를 드는 것은 다른 대상의 유사한 관계를 빌려 설명하는 유추와 구별된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순간순간의 감각에만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자연의 굳건하고 지속적인 형태는 소홀히 했다고 느꼈던 것이다. 반 고흐는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한 나머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고갱은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느꼈다.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 그것을 원시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이 세 사람의 화가가 모색했던 제각각의 해법은 세 가지 현대 미술 운동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 세잔의 해결 방법은 프랑스에 기원을 둔 입체주의(cubism)를 일으켰고, 반 고흐의 방법은 독일 중심의 표현주의(expressionism)를 일으켰다. 고갱의 해결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티비즘(primitivism)을 이끌어 냈다.

① 세잔은 인상주의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② 고흐는 인상주의가 강렬한 정열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다.

③ 고갱은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했다고 생각했다.

④ 세잔, 고흐, 고갱은 인상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각자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고갱은 자신이 본 인생과 예술에 불만을 느껴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것**을 열망했다. 따라서 인상주의가 이미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하다고 보았다는 설명은 글의 내용과 반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세잔은 인상주의자들이 순간적인 감각에 사로잡혀 자연의 굳건하고 지속적인 형태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다. 이는 인상주의에서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 사라졌다**고 느꼈다는 내용과 연결된다.

② O: 고흐는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 탐구했다고 보았다. 그 결과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는 설명이 지문에 제시되어 있다.

③ X: 고갱은 자신이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철저한 불만을 느꼈고,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것을 원시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따라서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했다'는 평가는 **더 솔직하고 단순한 것을 열망했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그가 새롭게 추구한 가치를 이미 충족된 것으로 바꾸어 서술한 선지이다.

④ O: 세 화가는 각자 느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지문은 그 해법이 세잔의 경우 입체주의, 고흐의 경우 표현주의, 고갱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티비즘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NoteBase

문 13.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처럼 좋은 걸 어떡해?

② 제 3장의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③ 공사를 진행한 지 꽤 오래되었다.

④ 결혼 10년 차에 내 집을 장만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제-'는 숫자에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뒷말에 붙여 쓴다. '제 3장의'는 **'제3장의'**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걸'은 **'것을'의 준말**로, 의존 명사 '것'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말이다.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므로 '좋은 걸'로 쓴다.

② X: '제-'는 '그 숫자에 해당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뒷말에 붙여 쓴다**. 따라서 '제 3장의'는 '제3장의'로 고쳐야 한다.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도 앞말에 붙여 쓸 수 있으므로 '3장'처럼 쓸 수 있다.

③ O: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이 문장에서는 공사를 진행한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나타내므로 '진행한 지'처럼 앞말과 띄어 쓴다.

④ O: '차'는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서 **주기나 경과의 해당 시기**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10년 차'로 띄어 쓴다. 단위를 나타내는 '년'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여 쓸 수 있고, 조사 '에'는 '차'에 붙이므로 '10년 차에'로 쓴다.

NoteBase

문 14. ‘깎다’의 활용형에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첨가: 없던 음운이 생기는 현상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또 다른 음운 하나로 바뀌는 현상
◯ 도치: 두 음운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현상

① ‘깎는’은 교체 현상에 의해 ‘깡는’으로 발음된다.
② ‘깎아’는 탈락 현상에 의해 ‘까까’로 발음된다.
③ ‘깎고’는 도치 현상에 의해 ‘깍꼬’로 발음된다.
④ ‘깎지’는 축약 현상과 첨가 현상에 의해 ‘깍찌’로 발음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깎는'은 받침 'ㄲ'이 [ㄱ]으로 바뀐 뒤, 뒤의 'ㄴ'에 동화되어 [ㅇ]으로 바뀌어 [깡는]으로 발음된다. 두 변화 모두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깎는'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ㄲ'이 [ㄱ]으로 바뀌고, 이어서 비음 'ㄴ' 앞의 [ㄱ]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발음 과정은 '깎는 → [깍는] → [깡는]'이다. 음절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는 모두 **교체**에 해당한다.

② X: '깎아'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가 결합하여 받침 'ㄲ'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까까]로 발음된다. 이는 **연음**으로, 'ㄲ'이 없어지는 탈락 현상이 아니다. 음절의 경계만 달라질 뿐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③ X: '깎고'는 받침 'ㄲ'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ㄱ]으로 바뀌고, 뒤의 'ㄱ'이 된소리 [ㄲ]으로 바뀌어 [깍꼬]로 발음된다. 이는 **음절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에 의한 교체이다. 두 음운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도치가 아니다.

④ X: '깎지'는 받침 'ㄲ'이 [ㄱ]으로 바뀌고, 뒤의 'ㅈ'이 된소리 [ㅉ]으로 바뀌어 [깍찌]로 발음된다. 음절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에 따른 **교체**이며,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축약이나 없던 음운이 생기는 첨가가 아니다.

NoteBase

문 1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포스트휴먼'은 그 기본적인 능력이 근본적으로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스웨덴 출신의 철학자 보스트롬은 건강 수명, 인지, 감정이라는, 인간의 세 가지 주요 능력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능력에서 현재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엄청나게 넘어설 경우 이를 '포스트휴먼'으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현재 가장 뛰어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며,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노화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젊음과 활력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존재는 스스로의 심리 상태에 대한 조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피곤함이나 지루함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미움과 같은 감정을 피하고, 즐거움, 사랑, 미적 감수성, 평정 등의 태도를 유지한다. 이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인간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체나 의식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신체를 버리고 슈퍼컴퓨터 안의 정보 패턴으로 살기를 선택한 업로드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또는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 만약 생물학적 인간이 포스트휴먼이 되고자 한다면 유전 공학, 신경약리학, 항노화술, 컴퓨터-신경 인터페이스, 기억 향상 약물, 웨어러블 컴퓨터, 인지 기술과 같은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두뇌나 신체에 근본적인 기술적 변형을 가해야만 할 것이다. '포스트휴먼'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았을 법한 슈퍼 인간의 모습을 기술한 용어이다.

① 포스트휴먼 개념에 따라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과학 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의 인간에 비해 더 크게 받을 것이다.

② 포스트휴먼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보완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귀결될 것이다.

③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형태가 어떠할지 여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다.

④ 포스트휴먼은 건강 수명, 인지 능력, 감정 등의 측면에서 현재의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포스트휴먼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 새로 구성될 것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포스트휴먼은 과학 기술을 통해 **현재 인간의 능력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이며, 그 형태도 **생물학적 인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마지막 문단은 포스트휴먼의 형태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안의 정보 패턴, 생물학적 인간의 개선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생물학적 인간이 포스트휴먼이 되려면 두뇌나 신체에 **근본적인 기술적 변형**을 가해야 한다. 이처럼 존재의 형태와 능력 자체가 과학 기술에 크게 의존하므로, 기술의 발전 양상이 현재 인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② X: 첫 문단에서 포스트휴먼의 기준은 건강 수명·인지·감정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능력이 현재 인간의 최대 한계를 엄청나게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극복 대상은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현재 인간의 능력 한계**이다. 또한 마지막 문단은 신체를 개선한 인간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신체를 버린 업로드도 가능한 형태로 제시한다. '신체적 결함을 보완한 새로운 인간형'으로 귀결된다고 한정할 수 없으며, 신체와 의식의 여러 가능성을 포함하는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

③ O: 첫 문단은 현재 인간의 능력 한계를 넘어선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마지막 문단은 인공지능·업로드·생물학적 인간의 개선 결과라는 여러 형태를 열거한다. 따라서 능력의 초월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구체적인 존재 형태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문단의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

④ O: 첫 문단은 포스트휴먼을 '현재의 기준으로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라고 설명한다. 건강 수명·인지·감정 가운데 **최소한 하나 이상의 능력**이 현재 인간의 최대 한계를 엄청나게 넘으면 기존의 인간 기준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이런 존재가 등장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을 규정하는 개념도 새롭게 구성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세 능력이 반드시 모두 뛰어나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16. 반의 관계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크다/작다’의 경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② ‘출발/도착’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③ ‘참/거짓’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쪽 단어의 긍정을 함의한다.

④ ‘넓다/좁다’의 경우,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크다/작다'는 중간 정도를 인정하므로 **둘 다 부정해도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 같은 대상을 같은 기준에서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통 크기라고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크다/작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중간 영역이 존재하는 등급 반의 관계이다. 같은 대상을 같은 기준에서 '크고 작다'고 동시에 긍정하면 모순이지만, **'크지도 작지도 않다'고 동시에 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통 크기인 경우가 있으므로,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해도 모순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

② O: '출발/도착'은 이동의 서로 다른 지점을 나타내며,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과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직 출발하지 않고 대기 중인 사람은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일 수 있다. 따라서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단어의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③ O: '참/거짓'은 중간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상보 반의 관계이다. **한쪽을 부정하면 다른 쪽을 긍정**하게 된다. 따라서 '참이 아니다'는 '거짓이다'를, '거짓이 아니다'는 '참이다'를 뜻한다.

④ O: 같은 대상을 같은 기준에서 '넓다'고 하면 '좁지 않다'는 뜻이 따라오고, '좁다'고 하면 '넓지 않다'는 뜻이 따라온다. 이처럼 **한쪽의 긍정은 다른 쪽의 부정을 함의**한다. 다만 '넓다/좁다'에는 중간 영역이 있으므로, '넓지 않다'가 반드시 '좁다'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7.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말ᄊᆞᄆᆞᆯ ㉠ 술ᄫᅳ리 하ᄃᆡ 天命을 疑心ᄒᆞ실ᄊᆡ ᄭᅮ므로 ㉡ 뵈아시니
> 놀애ᄅᆞᆯ 브르리 ㉢ 하ᄃᆡ 天命을 모ᄅᆞ실ᄊᆡ ᄭᅮ므로 ㉣ 알외시니
>
> (말씀을 아뢸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의심하시므로 꿈으로 재촉하시니
>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모르므로 꿈으로 알리시니)
> — 「용비어천가」 13장 —

① ㉠에서 '-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기능한다.

② ㉡에서 '-아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기능한다.

③ ㉢에서 '-ᄃᆡ'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기능한다.

④ ㉣에서 '-외-'는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기능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알외시니'는 '알다'에 **사동 접미사 '-외-'**가 결합한 말로, '알게 하시니'라는 뜻이다. 여기서 사동은 다른 사람이 어떤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은 '아뢸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이'는 **'사람'을 뜻하는 의존 명사**로, 앞의 관형사형 어미 '-ㄹ'이 붙은 말의 수식을 받는다. 이 의존 명사 뒤의 주격 조사는 생략되어 있다. 문장 전체에서 주어로 쓰인다는 사실과 '이' 자체가 주격 조사라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② X: '뵈아다'는 '재촉하다'의 옛말이므로, '뵈아시니'는 '뵈아- + -시- + -니'로 분석한다. **'아'는 어간에 속하며**,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는 '-아시-'가 아니라 '-시-'이다.

③ X: ㉢은 현대어로 '많지만'이라는 뜻이다. 말을 아뢰거나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천명을 의심하거나 모른다는 내용을 이어 주므로, 연결 어미는 이유가 아니라 **양보·대립의 의미**를 나타낸다.

④ O: '알외시니'는 '알- + -외- + -시- + -니'로 분석한다. '알-'에 **사동 접미사 '-외-'**가 붙어 '알게 하다'라는 뜻을 만들고, '-시-'는 주체 높임을 나타낸다. 지문에서는 꿈을 통해 천명을 알게 하였다는 뜻이므로, '-외-'를 사동 접미사로 설명할 수 있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동양의 음식 중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 음식 중 하나인 송편은 반달의 모습을 본뜬 음식으로 풍년과 발전을 상징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 의자왕 때 궁궐 땅속에서 파낸 거북이 등에 쓰여 있는 '백제는 만월(滿月) 신라는 반달'이라는 글귀를 두고 점술사가 백제는 만월이라서 다음 날부터 쇠퇴하고 신라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징표라고 해석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점술가의 예언이 적중했다. 이때부터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며,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의 떡으로 빚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반달이 아닌 보름달 모양의 월병을 빚어 즐겨 먹었다. 옛날에 월병은 송편과 마찬가지로 제수용품이었다. 점차 제례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지만 모든 가족이 모여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눠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보름달 모양의 월병은 둥근 원탁에 온 가족이 모인 것을 상징한다. 한국에서 지역의 단합을 위해 수천 명분의 비빔밥을 만들듯이 중국에서는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월병을 만들 정도로 이는 의미 있는 음식으로 대접받고 있다.

① 중국의 월병은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② 신라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었다.
③ 중국의 월병은 한국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을 본떠 만든 음식이다.
④ 『삼국사기』에 따르면 점술가의 예언 덕분에 신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반달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다. 글에서는 이러한 뜻을 담아 송편을 반달 모양으로 빚었다고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글에서는 월병이 옛날에는 제수 용품이었으나 점차 **제례 음식으로서의 위상을 잃었다**고 했다. 현재는 모든 가족이 모여 보름달을 바라보며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글의 설명이다.

② O: 점술사는 반달에 비유된 신라가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해석했고, 그 예언이 적중했다고 한다. 글은 이때부터 반달이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였으며, 그 뜻을 담아 송편을 반달 모양으로 빚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신라인들이 미래에 대한 기원을 송편에 담았다는 내용과 부합한다.

③ X: 수천 명분의 비빔밥과 월병은 많은 사람이 함께 먹는 음식이라는 **공통점을 보여 주기 위해 비교**한 것이다. 중국에서 한국의 비빔밥을 본떠 월병을 만들었다는 유래나 영향 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X: 글의 '예언이 적중했다'는 신라가 발전할 것이라는 **예측이 실제 결과와 맞아떨어졌다**는 뜻이다. 예언 덕분에 신라가 발전했다는 인과 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신라의 발전은 예언의 내용이며, 예언이 발전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

NoteBase

문 19. ㉠~㉣을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부으려 하는데 ㉠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괴이하게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고.' 하였다. 이윽고 한 중이 오는데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특이하더라. 엄숙하게 자리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산야(山野) 사람이 대승상께 인사를 드리나이다."
승상이 이인(異人)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하여 왈,
"사부는 어디에서 오신고?"
중이 웃으며 왈,
"평생의 낯익은 사람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잘 잊는다는 말이 옳도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낯이 익은 듯하거늘 문득 깨달아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가 전에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냐?"
중이 박장대소하고 말하되,
"옳다. 옳다. 비록 옳지 만 ㉡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 십 년을 같이 살던 일은 알지 못하니 누가 양 장원을 총명하다 하더뇨?"
승상이 어리둥절하여 말하되,
"소유가 ㉣ 열대여섯 살 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고, 열여섯에 급제하여 줄곧 벼슬을 하였으니 동으로 연국에 사신을 갔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것 외에는 일찍이 서울을 떠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부와 십 년을 함께 살았으리오?"
중이 웃으며 왈,
"상공이 아직 춘몽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이 왈,
"사부는 어떻게 하면 소유를 춘몽에게 깨게 하리오?"
중이 왈,
"어렵지 않으니이다."
하고 손 가운데 돌 지팡이를 들어 난간을 두어 번 치니 갑자기 사방 산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에 쌓여 지척을 분변하지 못했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에 취한 듯하더니 한참 만에 소리 질러 말하되,
"사부는 어찌 소유를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환술(幻術)로 희롱하나뇨?"
대답을 듣기도 전에 구름이 날아가니 중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낭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 김만중, 『구운몽』 —

① ㉠→㉢→㉣→㉡

② ㉠→㉣→㉢→㉡

③ ㉢→㉣→㉡→㉠

④ ㉣→㉢→㉡→㉠

NoteBase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의 '십 년을 같이 살던 일'은 **성진이 꿈을 꾸기 전** 스승과 지낸 시간이다. 꿈속 인물인 양소유의 어린 시절을 가리키는 ㉡보다 앞선다.

올바른 순서

㉣ → ㉡ → ㉤ → ㉠

㉣: 성진이 꿈을 꾸기 전 현실에서 스승과 십 년 동안 함께 생활한 일이다. 양소유로 살아가는 꿈속의 생애가 시작되기 전이므로 가장 앞선다. 중은 이때의 일을 말하지만, 양소유는 **꿈속의 삶을 현실로 여기고 있어** 기억하지 못한다.

㉡: 꿈속에서 양소유가 열대여섯 살이 되기 전까지 부모 슬하에서 지낸 어린 시절이다. 이어지는 '열여섯에 급제하여 줄곧 벼슬을 하였으니'라는 말에서, 이 시기가 **벼슬길에 올라 토번을 정벌하기 전**임을 알 수 있다.

㉤: 양소유가 토번을 정벌할 때 꾼 꿈에서 남악의 화상을 만난 일이다. 양소유의 생애 자체가 성진의 꿈이므로, 이는 **꿈속에서 다시 꾼 꿈**에 해당한다. 부모 슬하에서 지내던 어린 시절 이후이며, 현재 중과 대화하면서 과거의 일로 회상하고 있다.

㉠: 양소유가 술을 다시 부으려던 중 소리를 듣고, 이어 찾아온 중을 만나는 현재의 장면이다. 이 만남에서 양소유가 토번 정벌 때 화상을 만났던 일을 떠올리므로, ㉤보다 뒤에 일어난 사건이다.

NoteBase

문 2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부으려 하는데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괴이하게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고.' 하였다. 이윽고 한 중이 오는데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특이하더라. 엄숙하게 자리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산야(山野) 사람이 대승상께 인사를 드리나이다."
승상이 이인(異人)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하여 왈,
"사부는 어디에서 오신고?"
중이 웃으며 왈,
"평생의 낯익은 사람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잘 잊는다는 말이 옳도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낯이 익은 듯하거늘 문득 깨달아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가 전에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냐?"
중이 박장대소하고 말하되,
"옳다. 옳다. 비록 옳지만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십 년을 같이 살던 일은 알지 못하니 누가 양장원을 총명하다 하더뇨?"
승상이 어리둥절하여 말하되,
"소유가 ㉣열대여섯 살 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고, 열여섯에 급제하여 줄곧 벼슬을 하였으니 동으로 연국에 사신을 갔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것 외에는 일찍이 서울을 떠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부와 십 년을 함께 살았으리오?"
중이 웃으며 왈,
"상공이 아직 춘몽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이 왈,
"사부는 어떻게 하면 소유를 춘몽에게 깨게 하리오?"
중이 왈,
"어렵지 않으니이다."
하고 손 가운데 돌 지팡이를 들어 난간을 두어 번 치니 갑자기 사방 산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에 쌓여 지척을 분변하지 못했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에 취한 듯하더니 한참 만에 소리 질러 말하되,
"사부는 어찌 소유를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환술(幻術)로 희롱하나뇨?"
대답을 듣기도 전에 구름이 날아가니 중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낭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 김만중, 「구운몽」 —

① '승상'은 꿈에 남악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낯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② '승상'은 본디 남악에서 '중'의 문하생으로 불도를 닦던 승려였음을 인정한 뒤 꿈에서 깨게 된다.

③ '승상'은 '중'이 여덟 낭자를 사라지게 한 환술을 부렸음을 확인하고서 그의 진의를 의심한다.

④ '승상'은 능파 낭자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벌한 이가 '중'임을 깨닫고서 '중'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된다.

NoteBase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승상은 꿈속에서 남악의 화상을 만났던 일을 떠올리고, 눈앞의 중에게 그 화상이 맞는지 묻는다. 중에게서 느낀 낯익음은 **꿈속에서 만났던 기억**과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중이 평생 낯익은 사람을 몰라본다고 말하자, 승상은 중을 자세히 살펴보고 낯이 익다고 느낀다. 이어 토번을 정벌할 때 꿈속에서 남악에 갔다가 불경을 강론하는 화상을 보았던 일을 떠올린다. 눈앞의 중이 바로 그 화상인지 묻는 대목에서 **꿈속 만남의 기억과 낯익음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다.

② X: 승상은 중과 십 년을 함께 살았다는 말을 듣고, 부모 슬하에서 자라 급제한 뒤 줄곧 벼슬을 했다는 자신의 이력을 내세워 반문한다. 이는 중의 문하에서 살았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십 년을 함께 살았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반응**이다. 제시된 대목에는 자신이 본래 승려였음을 인정하거나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도 나타나지 않는다.

③ X: 승상이 중에게 환술로 자신을 희롱하느냐고 따지는 것은 구름 때문에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정신이 아득해진 때이다. 그 말을 한 뒤에 구름이 걷히고 중과 여덟 낭자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다. 따라서 **여덟 낭자의 부재를 확인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중의 행위를 환술에 의한 희롱으로 여긴 것이다.

④ X: 승상이 중과 십 년을 함께 살았다는 말을 부정하는 근거는 부모 슬하에서 지내다가 벼슬길에 올랐다는 **자신의 생애에 대한 기억**이다. 능파 낭자와 어울린 죄로 징벌을 받았거나 그 징벌을 내린 이가 중임을 깨닫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승상의 반문은 징벌자를 알아보아 관계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억하는 삶과 중의 말이 맞지 않아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NoteBase